



잠언¹⁾의 하나님 이해와 성스러움

한 동구 | 평택대

1. 소통의 담론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그 원인들을 진단하고, 또 나름의 처방도 내리곤 했다. 그 중 하나는 교회와 사회와의 소통의 문제이다. 그 동안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고, 신세대와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신세대와 젊은 청년층과의 소통부채를 낳게 되었다. 교회가 변화된 세계, 특별히 디지털 문화와의 소통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세대에 대한 선교와 교육은 위기에

1) 그 동안 잠언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 제 8집 (2000년), 133-149. 천사무엘, “잠언연구의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 제 14권 4호(통원 30집 2008년 12월 31일), 147-166. 한동구, “잠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제 17권 3호(통원 43집 2011년 9월 30일), 12-33.

봉착했고, 이 위기의식은 신학과 교회로 하여금 소통이라는 담론이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에 출판한 「감자탕 교회 이야기」²⁾나 2011년에 봉헌한 신촌성결교회의 “영화관 같은 교회” 등에서 볼 수 있듯,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사회선교와 사회봉사의 관점에서는 한국교회는 세계와 소통하려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가 세계의 변화와 이로 인해 초래된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신학적 해석과 성경의 해석을 통해 신학적 담론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잠언의 두 번째 단락(잠언의 초기 수집록; 잠 10:1-22:16)에서는 다윗-솔로몬 시대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를 신학적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 잠언의 초기 수집록에서는 왕조시대 이전의 구속적 하나님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서 사회질서와 사회정의를 제정하고, 이를 유지시키며, 또한 보증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 잠언(잠 10:1-22:16)이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를 살펴본다. 특별히 고대 잠언의 저자는 당대의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신학적 담론으로 발전시켜 진정한 소통의 모델을 형성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대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가치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고대 잠언의 중요한 문학적 특징인 인과론과 이를 전제하는 하나님 이해를 살펴본다. 그리고 초기 잠언이 보여준 사회적 성찰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종교적 성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2) 서울 수락산 입구 자리 잡은 ‘도봉산 감자탕’ 집 건물 한 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광명교회의 이야기이다. 이 교회는 거대한 감자탕 간판에 가려 원래 이름도 잃고 ‘감자탕 교회’로 불리고 있다. 광명교회는 94년부터 일찌감치 홈페이지를 개설해 홈페이지를 통해 교회 행정 뿐 아니라 교역자와 교인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이루어냈으며,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확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장학, 구제, 선교사업에 재정의 30%를 투자한 결과 매년 5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함은 물론, 캄보디아와 중국에 학교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양병무, 「감자탕교회 이야기」, (서울: 포이에마, 2008).

초기 잠언의 사회-윤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잠언의 역사적 배경과 세계관

이스라엘 사회는 기원전 12-11세기에 사사 시대에서 영토를 가진 왕조국가로 전환하였다. 지파적 사회가 상비군과 중앙정부를 가진 국가로 변모하였다. 종래의 지파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제적 개방적 분위기와 함께, 지혜문학, 음악과 시 등의 예술적 활동도 성행하였다.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 일차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가나안족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했다. 이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사업을 완수한 것이었다. 이후 주변국가를 침공하여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광대한 영토를 가진 제일 강한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스라엘 제국은 분명히 동질적인 단일 민족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다.³⁾ 다양한 정복민들을 제국의 새로운 국민으로 통합시켜야 했다.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경제적으로 다층구조로 분화된 사회였기에 사회-경제적 통합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⁴⁾ 따라서 제국 내의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했다. 정치적으로도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⁵⁾

다윗-솔로몬 제국은 지파사회의 개체들을 제국에서의 생산적인 주체로 전환해야 했다. 다윗-솔로몬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혈연-지연이라는 집단적 생활방식이나 사유형태에 묶여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제국에서는 창의적 사유능력을 가진 '자율적 개체'가 필요하게 되었다.

잠언에서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 지혜, 정의, 질서 등의 보편적 가치를 통하여 '자율성을 전제하는 새로운 인간관'을 주창하게 되었고, 또한 세계와 우주를 질서의 토대 위에 세우므로 각 개체의 통합을 이룩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지혜문

3)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애돔, 모압, 암몬 사람들 그리고 시리아-다메섹 사람들이 제국 속에 편입되었다.

4) 한동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 제 3장 다윗-솔로몬 시대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참조하라.

5) 모압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속국이 되었다(삼하 8:2). 그러나 애돔은 이스라엘의 한 속주로 합병되었고, 왕조는 폐위되었다. 아람 다메섹의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삼하 8:6). 그러나 다른 아람 지역은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다. 하맛의 경우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이 되었다(삼하 8:10).

학에서는 혈연-지연의 소속감이나 연대감보다는 보편적 진리를 새로운 통합의 원리로 삼았다.

3. 잠언에 나타난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

다윗 이전의 자료에서는 주로 구속사를 서술하였다. 여기에서의 중심 사상은 제의적 체험이며, 사건의 중심인물은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항상 동행하여 나그네 살이 인생이 겪는 고통과 위기에서 함께 하셨다. 나아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삶에서 함께 하셨다.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외부에서 물려오는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과)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용사들을 야훼의 백성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은 자연의 주로서 필요에 따라 비를 내리줄 뿐 아니라, 토지의 산물을 풍요롭게 하여 일용한 양식을 보장해 주었다. 전통적인 신앙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역사를 직접 주관하신다.

왕권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야훼와 함께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제 왕은 적의 침입을 막아 국가를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를 국가에 통용시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관리의 자리에 배치시켜야 한다.

이전에는 신의 역사만 존재했으나, 이제는 역사가 인간의 손에 넘어왔고, 역사를 인간이 책임져야 했다. 이러한 신학적 변화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충분히 받았다는 데 기초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여 인간은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왕도 이러한 점에서 동일하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어 그로 하여금 국가를 경영하게 했으며, 동시에 국가 경영의 책임도 지게 했다.

다윗 상승사회와 왕위계승사회에서 중요 관심사는 제의적인 문제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바뀌었다. 다윗은 인간 역사, 책임감과 결단력 및 권력의 행사 등에 대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찾는 것은 인간의 일이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다가

온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인간의 결단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 잠언은 인간을 자율적 개체로 보아 인간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혜문학과 잠언에서는 교육적 이상형의 인간상을 제시하며,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의 길을 추구하였다.

잠언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잠언의 저자는 전통적 신앙과 가치에 입각하여 새로운 제도와 정신을 해석하여 자신의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용했다.

4. 잠언의 인과론과 하나님 이해

다윗-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경제의 규모와 형태가 종래의 지파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였고, 잠언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정의를 전하고 있다.

1) 잠언의 인과론

다윗-솔로몬 시대의 지혜 신학자들은 부의 공정한 획득(현대적 언어로 분배)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들은 잠언 12장 14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을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와 같이, 노동의 대가만큼 부를 얻는 것이 정의롭다고 주장하였다(참조 13:11; 14:23).⁶⁾

이들은 종래의 지파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 즉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제관 배후에는 잠언의 독자, 즉 (초기) 잠언이 전제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대부분 백성들이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있다(잠 12: 11; 참조 잠 13: 23; 20; 4). 그런 의미에서 롤스가 말하는 원초적 상황에서의 공정성이 최소한의 범위에

6) 한동규, “잠언의 언어관.”……, 잠언에서는 부-분배의 원칙을 개인의 근면과 게으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한다. 참조 잠 10: 4; 12: 14; 12: 16; 13: 4; 13: 23; 14: 23; 18: 9; 19: 15; 20: 13; 21: 5.

서나마 확보된 상황이다.⁷⁾

이처럼 원초적 상황이 비교적 공정했던 상황에서, 고대 지혜 문학의 중요한 과제는 우연한 것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사건의 배후에서 사물의 흐름을 지배하는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잠언의 대부분의 구절들은 하나의 **원인 구절**과 하나의 **결론구절**이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행동과 성과의 연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지혜 신학자들은 이러한 행동과 성과의 법칙,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과론)에 근거하여, 제국의 질서를 수립하고, 다원적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칙을 수립한 것이다.

2) 인과론의 창시자, 야훼

잠언의 지혜 신학자들은 행동과 성과의 법칙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계신다고 믿었다.⁹⁾ 잠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야훼께서 이러한 행동과 성과의 법칙의 창시자이며, 동시에 유지자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¹⁰⁾

첫째, 야훼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행동과 성과의 법칙이 자연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잠 25:23; 참조 잠 26:20). 여기에서는 자연에 내재된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가 행동과 성과의 법칙과 동일한 것임을 나타낸다.

둘째, 사물이나 행동 배후에서 작용하는 신적 존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있다.¹¹⁾ 잠언 10장 6절에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

7)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제기한다. 롤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등한 원초적 입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차이가 없는, 다시 말하여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에 의한 유리함이나 불리함이 없는 원초적 상황**을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 서만이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함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존 롤즈, 『정의론』(서울: 이학사, 2003). 원제는 J. Rawls, *A Theory of Justice*.

8)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Ⅲ』(허 혁역)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80), 146-161.

9) 폰 라트(G. von Rad)는 다윗-솔로몬 시대에는 “계몽된 정신 하에서 지혜문학 및 문화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폰 라트, 위클리. 이러한 주장은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 폰 라트의 주장을 브루지만(W. Brueggemann)에 의해 다소 진전시키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새로운 문화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히 밝혀내고 있지 못하다. 크렌쇼 (J. L. Crenshaw)의 경우 이러한 주장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장일선역), (서울: 대한가독교출판사, 1980).

10) H. D. Preuß,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Urban-Taschenbücher 383),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7), 50-60, 51.

라”고 말하고, 잠언 11장 8절에서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의 길로 가느니라”라고 말하듯, 복과 구원의 행위는 신적 존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야훼께서 행동과 성과의 법칙을 직접적으로 보증했다는 점을 말한다.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
고 말한다. 또한 야훼께서 행동과 성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질서를 친히 창조하셨
다고 말한다. 잠언 12장 2절에서는 “선인은 야훼께 은총을 받을 것이나, 악을 피
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다!” 야훼께서는 행동과 성과의 법칙, 즉 인과론
에 따라 움직이는 질서 안에서 또는 이 질서를 통하여 모든 사물들이 작용하고
움직이게 하신다(잠 10:29; 11:31; 14:27; 15:25; 16:5; 18:10; 19:17; 20:22; 22:4, 23;
23:11; 24:12, 17-18, 21-22; 25:21-22; 29:25). 동시에 야훼는 이 질서 안에 세계를
유지시키신다(잠 10:3, 22; 15:25; 16:1, 9; 20:24; 21:1, 31; 참조 잠 10:9, 29).

행동과 성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질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잠 15장 31절에서는 지혜자라
면 이 질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참조 25:12).

5. 초기 잠언이 보여준 사회적 성찰

초기 잠언에서 전제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대체로 농경 사회였다. 일부는 고정
된 도시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영위하는 사람과 함께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있었다. 포로기 이전 왕조시대의 상황과 일치하며, 전적으로 훨씬 더 도
시 문화권의 생활 조건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소 자유 농민들의 몰락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전하고 있지 않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하여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¹¹⁾

다만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11) 이러한 신적 존재를 ‘전제된 신성’(passivum divinum)이라 부른다(예 잠 10:6, 9, 24, 30; 11:8, 11, 17, 18, 19,
21, 25, 31; 14:11; 22:8).

12) 폰 라트, 윗글, 91-92.

말라는 권면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잠언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는 어떤 윤리적 혹은 법적 규범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개인에게는 어떤 공동생활의 양식, 즉 가정, 가문 또는 거주부락 등이 언제나 이미 주어지고, 이 공동생활은 그 자체에서 윤리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폰 라트는 이러한 공동생활로부터 주어진 윤리적 분위기를 자연적 지침과 가치척도라 하였다.¹³⁾

지혜신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지침과 가치척도로 확대시켰다. 이들은 모든 개인의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모든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근면과 게으름, 지혜와 미련 및 정의와 불의’라는 척도에 따라 평가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개발해 나갔다.

잠언의 지혜 신학자들도 불법적 수단에 의한 부의 획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성을 허무는 상행위나 경제활동을 경계한다.

공정성의 원칙을 해치는 부정한 상행위에 대해서도 잠언에서는 엄격히 경계한다. 잠언 16장 11절에서는 각종 저울이나 저울의 추는 아뢰게서 창조하신 것으로, 결코 사사로이 왜곡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규범이다. 따라서 상행위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속이는 저울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되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였다(잠 11:1; 20:10; 20:23).¹⁴⁾

또 잠언 11장 26절에서는 곡식의 독과점이나 매점매석의 부당 행위를 경계한다. 단순한 현상의 묘사를 넘어, 백성의 저주와 (아마도 하나님에 의한) 축복에 의해 동기가 강화되었다.

잠언 13장 8절에서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고 말한다. 초기 잠언에서는 재물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수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낙관적인 경제관이 잠언 13장 8a절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잠언 13장 8b절에서는 무리한 수단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부 획득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망이나 협박을 받

13) 뢰틀, 91-93.

14)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정적 가치 평가(악인)를 통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강화할 뿐 아니라, 종교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전한다(참조 잠 20:17; 21:6). 부 획득 수단에 대한 이러한 성찰을 잠언 13장 11절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에서도 정당한 부의 획득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잠 13:17, 22, 23, 24; ...).

불법적 수단으로 부를 획득하여도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잠언 13장 23절에서는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한다. 잠언 13장 23a절에서는 성실한 노동만이 부를 획득할 수 있고, 또 부유해질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잠언 13장 23b절에서는 불의로운 수단으로 부를 획득한다 할지라도 이는 유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를 탕진하게 됨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 획득의 수단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나타내는 잠언도 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정당한(부 획득의) 수단을 선택하는 태도를 잠언에서는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잠언 16장 8절에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기록한다. 이러한 잠언을 “-보다 더 낫다” 형태의 잠언이다(참조 잠 15:17; 16:19; 17:1; 19:1, 22).

6. 종교적 성찰

지혜신학자들은 이러한 규범화에 종교적 성찰도 포함시켰다.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神的인 가치와 규범들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여 자연적이며 사회적인 척도 속에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1) 정의로운 하나님

잠언에서는 야훼의 성품에 근거한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여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더욱 강화시키기도 한다.

잠언 18장 9-11절에서는 안전과 멸망에 대하여 언급한다. 잠언 18장 11절에서 매우 낙관적인 경제관이 반영된 잠언이다. 이와 유사하게 잠언 18장 9절도 패망의 원인을 사회적 부조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불성실에서 찾고 있다. 잠언 18장 9절과 11절 사이에, 즉 잠언 18장 10절에 종교적 동기가 부여된 구절이

놓여있다.

- 9 자기의 일을 깨울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 10 야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에서 잠언 18장 9절에 따르면, 게으른 자는 가난해진다. 잠언 18장 10절에 따르면, 야훼께 도피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는 의인뿐이다. 그런데 잠언 18장 전체에 흐르는 전후 문맥으로부터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며(잠 18:1), 동시에 악인으로 이미 평가되어 있다(잠 18:3, 5). 따라서 게으른 자, 즉 악인이 야훼께 도피한다 하여도 그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에서 잠언 18장 10절은 잠언 18장 9절의 내용을 강화시켜주며,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도식으로 수정하고 있다.

또 잠언 18장 11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는 점을 말한다.¹⁵⁾ 그러나 잠언 18장 10절과 11절이 서로 결합하면서, 이러한 낙관주의적 경제관은 제한되고 있다. 그 부자가 공정한 경쟁, 즉 정의로운 수단으로 부를 얻을 때에만 그에 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야훼 하나님은 공정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와 함께 사회적 정의를 강화시킨다.¹⁶⁾

야훼께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강화시키는 모습을 잠언 10장 3절에서도 볼 수 있다.

- 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5) 이러한 주장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현상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여기에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낙관주의적 경제관을 들어낸 것이다.

16)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종교적 동기의 부여가 공정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읽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거는 잠 18장 10절의 안전을 신뢰할만한 안전으로, 잠 18장 11절의 안전을 세간 떠도는 거짓된 안전으로 보아, 상호 대립되는 것으로만 읽었다. 참조 O. Plöger, *Sprüche Salomos Proverbia*, 212. 델쿠르트 이와 유사하게 주장한다. H. Delkurt, *Ethische Einsichten*, 102-106. 화이브레이는 이러한 종교적 동기의 목적을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거만한 부자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고만 하였다. R. N. Whybray, *Wealth and Poverty in the Book of Proverbs*, 64-68.

3 아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잠언 10장 2절에서는 ‘정의-불의’의 대립된 개념이 나란히 소개된다. 이 구절은 잠언의 중간단락(잠 10:1-22:16)의 서두에 위치하여, 이 단락의 성격을 규정하는 듯하다.¹⁷⁾

잠언 10장 2절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수단, 즉 불의에 의한 재물은 무익하며, 이는 죽음에서 구출할 수 있는 정의와 대립된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잠 10장 3b절에서도 소개된다. 여기에서는 아훼께서 인과의 법칙에 직접 개입하여 악인들이 얻은 재물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소유에 대한 욕망을 물리친다고 하였다.¹⁸⁾

그리고 잠언 10장 2b절에서는 어떤 인간이 죽음의 경지에 처했을 때, 여기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의라고 말한다. 이는 잠언 10장 15a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의 내용을 수정하여, 공동체적 가치, 즉 ‘공의’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수단’에 의해 획득된 재물만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잠언 10장 3a절에서 “아훼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라고 반복된다. 여기에서는 종교적 가치를 통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¹⁹⁾

2) 인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잠언 지혜 신학자들은 아훼의 기뻐하심과 그의 싫어하심의 표명을 통해 인간의 (개인적-사회적) 행동, 태도 및 생각을 평가하였다.

이들은 도량형량에 있어서 한결같지 않고, 속이는 추나 저울을 사용하는 상형

17) A. Meinhold, *Die Salomos*, (Zürcher Bibelkommentare 16), (Zürich: Theologische Verlag, 1991), 166에서는 “일 변화의 특성을 부여했다”고 하였다.

18) 여기에서 악인의 소욕(목적어)을 물리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문맥상으로는 잠 10장 3a절의 주어가 계속되어 아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언에서 흔히 볼 수 있듯, 3a절과 3b절을 분리하여 본다면, 3b절의 주어는 사회적 통념, 즉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다. 일반적 사람이 주어라면 잠 10장 2a절과 동일한 내용이다.

19) 이와 유사한 견해를 O. Plöger, *Sprüche Salomos*, 124에서도 볼 수 있다. 스킨라릭은 동일한 어휘와 대칭적(chiasmisch) 구조를 이루고 있어 동일한 편집적 지평에 놓인다고 주장한다. 참조 R. Scoralick, *Einzelnspruch und Sammlung. Komposition im Buch der Sprichwörter Kapitel 10-15*, 169-175.

위를 야훼께서 싫어하는 범죄행위로 규탄하였다(잠 11:1; 20:10; 20:23). 야훼께서는 바른 추와 저울을 창조하여, 이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셨다(잠 16:11). 속이는 추나 저울은 우연한 과실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 범죄 행위의 산물이다. 야훼께서 이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그 기저에 놓여있는 불의를 제거하여, 그의 통치 영역 내에 일체의 불의를 제거하고 하였다. 잠언에서는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된 추나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자신의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며 동시에 야훼께도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잠언 17장 15절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야훼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행위는 가치가 뒤바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전도의 상황은 사법의 영역에서 많이 일어난다. 불의한 재판관이 유죄한 자에게 무죄한 자로, 이와 반대로 무죄한 자를 유죄한 자로 선언하는 행위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전도의 행위는 잠언 17장 8, 23절에서 언급한 바, 뇌물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마도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언급한 잠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잠언 17장 26절에서 말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다.²⁰⁾ 사법상의 범죄는 의로운 자에 대한 범죄이며, 동시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

지혜 신학자들은 사회적 윤리와 종교를 결코 이원화시켜 바라보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하나인 것이다. 야훼 하나님은 상행위와 사법상에 있어서 규범의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사회적 질서와 정의의 수호자이다.

야훼의 의지 표명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사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야훼는 인간의 언어, 태도 및 생각 속에 반영된 그의 의지를 꿰뚫어 보신다. 야훼께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의지가 표출되는 마음 속 깊은 곳을 향한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야훼께서는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한다. 잠 11장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며” 그리고 잠언 16장 5절에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는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받지 안으시며, 오직 정직한 자의 기도만이

20) A. Meinhold, 윗글, 290.

들으신다고 말한다(참조 잠 15:8, 9, 26; 21:27). 여기에서 야훼께서는 기도는 들으시고, 제사는 물리치신다고 이해해서는 않된다. 오히려 인간의 태도를 바라본다. 악인이 드리는 것과 의인이 드리는 것을 바라본다. 윤리적 요소가 제의적 영역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윤리와 제의가 결코 분리되지 아니한다.

3) 인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잠언에서는 야훼께서 악인의 내면에 있는 악의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한다.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여 정의를 확립하시고자 하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야훼께서는 인간의 길을 감찰할 능력이 있는 분으로 고백한다(잠 15:3, 11; 16:2; 17:3; 20:27; 참조 24:12). 잠언 15장 3절에서는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모든 곳에서)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한다. “어디서든지(=모든 곳에서)”라는 표현에서 내포하듯, 이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잠언 15장 11절에서는 “스올과 아바돈도 야훼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라고 말한다(참조 잠 20:27). 야훼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점을 뜻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은 야훼 앞에 개방되어 있다.

야훼의 감찰을 표현한 구절들 중에는 야훼의 판단과 가치평가가 인간이 스스로 내린 판단과 가치평가와 대립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 말한다(참조 잠 21:2; 24:12). 야훼와 인간은 각기 인간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다. 여기에서 평가의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물론 그 이면에 감추어진 동기와 의도도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평가의 내용이 상호 대립된다는 점이다. 이는 행위와 동기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보기에 ‘깨끗하다’”라는 표현에서 ‘깨끗하다’라는 말은 주로 물질의 현상에 적용하여 사용된다. 예를 들어 기름 속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그래서 깨끗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 뜻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어 ‘올바른’ 행위를 나타낸다. 인간의 감찰과 판단 능력은 한계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 행위만 알뿐, 그 이면의 동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한다. 악인들에게는 종종 행위와 동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은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는 물론 그 이면의 동기에까지 감찰할 능력이 있어, 모든 것의 참된 진실을 파악하실 수 있다. 인간의 자기 판단과 평가와 야훼의 판단과 평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인간의 계획과 야훼의 성취

잠언에서는 분명히 역사의 결정은 하나님의 일이다. 잠언 16장 1절, 9절과 33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전한다(잠 16:1, 3, 9, 21, 33; 19:21; 20:24; 21:31). 동시에 잠언은 인간이 해야 할 새로운 가치를 전한다.

인간이 무엇인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가 의도했던 결과가 모두 성취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악인의 의도는 더욱 그렇다. 잠언의 여러 구절에서 “인간의 계획이 자동적으로 혹은 우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작용하여 성취하신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인간의 역사 배후에는 야훼가 계시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야훼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특별히 악의 행동은 야훼에 의해 반드시 좌절된다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한다.

위 구절들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은 인간의 성실성, 정직 및 의로운 행동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수단에 의한 계획과 음모는 무의미하다는 뜻이다.²¹⁾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충고도 이러한 범주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공정성과 정의를 쫓고, 또한 질서에 상응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하여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수단에 의존할 때, 그 결과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안해하

21) 한편 이러한 구절은 약간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을 넘어 신비한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구약성서의 후기 신학 사상과 일치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위 구절들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결정’을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결정을 내리시므로,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익하며, 동시에 그의 결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신비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지 말 것을 충고한 말씀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충고한 잠언 15장 16절의 말씀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하며,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야 한다”라고 충고한 잠언 22장 1절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다.

5) 창조주 하나님

초기 잠언에서는 다른 지혜문학에 비하여, 세계창조의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으며,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구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서는 다만 인간 창조의 주제만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야훼를 창조주로 고백하는 구절은 대부분 사회-윤리적 맥락 속에서이다.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 이들을 창조하신 이를 존중하는 자로 혹은 이들을 무시하는 자들로 간주하였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 14:31; 참조 잠 17:5). 또한 잠언 22장 2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야훼이시다”라고 하였다(참조 29:13). 초기 잠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사회는 이미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함께 섞여 사는 다계층적 사회였다. 야훼께서 이들 모두를 창조했다는 사실은 가난한 자도 야훼의 피조물로서, 이들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아주 제한된 구절에서 창조가 지혜로운 삶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잠 22장 2절에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야훼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말한다. 눈과 귀는 중요한 인지 기관으로, 이것들의 바른 사용여부에 따라 지혜자로 평가된다. 야훼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의 선택은 자신의 몫임을 말한다. 신체 기관의 언급이 야훼의 창조행위를 묘사했다기 보다는 공동체 내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관에서 나왔다.

7. 야훼 경외

잠언의 둘째 단락(잠 10:1-22:16)에서 야훼 경외에 대하여 언급한다(총 9구절).

www.kci.go.kr

비교적 빈번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잠언 전체에서 야훼 경외의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잠언의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 잠언의 둘째 단락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²²⁾

1) 야훼 경외의 내용

초기 잠언에서 언급한 야훼 경외를 담은 잠언이 추구하는 중심 내용은 올바른 삶의 추구이다. 잠언 14장 2절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야훼를 경멸한다”고 하였고,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인애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야훼의 경외를 말하고 있으나, 제의적 예배, 즉 제사나 기도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언급한다. 정직하게/올바르게 사는 삶, 그 자체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되며(잠 14:2a), 이와 반대로 패역하게 행하는 자, 그의 삶의 길을 빼놓아지게 하는 행위가 곧 야훼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겼다(잠 14:2b). 동시에 죄와 악에서 멀어지는 길은 인애를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며, 무엇보다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잠 16:6). ‘속하다/화해하다’ 라는 말은 원래 제사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화해되어진다는 제의적 개념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사회적 윤리 개념에 적용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정직을 행하는 것은 곧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²³⁾ 역으로 말하면 야훼의 경외를 사회적 행위 속에 찾고 또 실현했다.

2) 야훼 경외의 보상

초기 잠언에서도 야훼 경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훼 경외가 가져다주는 보상을 통하여 강조한다. 잠언 14장 26-27절에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라고 말한다(참조 잠 10:27; 19:23; 22:4).

22) J. Hausmann, *Studien im Menschenbild der älteren Weisheit*, (FAT 7),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95), 265-277.

23) A. Meinhold, *윗클*, 267.

잠언 14장 26절에서 언급된 “자녀들”은 성인들의 2세나 후손과 같은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사랑하고, 그를 공경하며 그에게서 안전을 얻는 자들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여 신앙과 교육 공동체의 일원을 의미한다.

잠언 14장 26절에서는 인간의 안전에 대하여 질문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정의롭고 또 지혜로운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 그 행위의 결과나 다른 사람의 해악에 의한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올바른 삶의 길을 걷게 되고, 이것은 곧 의지할만한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여 인간은 야훼 경외 가운데 궁극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참된 삶의 실현에 대하여 질문한다. 잠언 13장 14절에서 매우 유사한 내용을 전한다. 사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생명의 샘으로 이르게 하는 길은 잠언 13장 14절에서는 “지혜있는 자의 교훈”에서 찾고 있으나,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혜있는 자의 교훈”과 “야훼 경외”는 일치한다. 이는 야훼의 경외 ‘성실, 지혜 및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길’ 뿐만 아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족하게 지내는 것”을 포함하며, 잠언 15장 33절에서는 “존귀”를 포함하며,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재물과 영광”도 포함된다. ‘생명’ 혹은 ‘생명의 길’은 모든 보상을 포괄하는 일종의 상위 개념이다.

8. 결론: 사회-윤리 속에서 성스러움의 발견

(초기) 잠언에서는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들을 통합해야 한다’는 다윗-솔로몬 시대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정의의 원칙을 수립하여 제국의 질서로 자리잡게 했다.

잠언에서는 “사람은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을 것이다”라는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시 말하여 노동의 대가만큼 부를 얻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서 잠언에서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였으며, 행동과 성과의 법칙, 인과론을 수립하여 제국의 질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잠언에서는 지혜, 정의 및 질서 등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워나갔다. 보편적 진리의 추구를 통하여 혈연-지연의 소속감이

나 연대감을 넘어 설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잠언은 다윗-솔로몬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과 소통하였다. 더 나아가 시대정신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독특한 신학적 담론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점에서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사회와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근면과 계엄, 지혜와 미련 및 정의와 불의’라는 척도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불의한 부의 획득을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성찰도 하였다.

사회적 성찰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성찰로 이어졌다.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일상의 삶, 다시 말하여 사회-윤리적 행위 속에서 神的인 가치와 규범들을 발견하였다. 초기 잠언에서 보여준 神的인 가치와 규범은 사회적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수립하려 데 기여하였다.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사회-윤리적 규범 속에서 신의 의지를 발견하고, 일상의 삶을 정의로우며 동시에 성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야훼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며, 인간을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결과를 주관하시며, 동시에 인간의 계획을 넘어 합당한 결과를 주관하신다.

잠언의 지혜신학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회-윤리적 규범 속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의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의 경외를 주장하였다.

9. 참고문헌 목록

- 롤즈, 존, 「정의를론」(서울: 이학사, 2003). 원제는 J. Rawls, *A Theory of Justice*.
박준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운동,” 「구약논단」제 8집 (2000년), 133-149.
브루지만, 「지혜전승연구」(장일선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0). 원제는 W. Brueggemann, *In Man We Trust*.
양병무, 「감자탕교회 이야기」(서울: 포이에마, 2008).
천사무엘, “잠언연구의 해석학적 과제들,” 「구약논단」제 14권 4호(통원 30집 2008년 12월 31일), 147-166.
크렌쇼, 「구약지혜문학의 이해」(강 성열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폰 라트, 「구약성서신학 III」(허 혁역), (경북 왜관: 분도출판사, 1980).

- 한동구, “잠언의 언어관,” 『기독교언어문화논집』 제 5집 (서울: 국제언어문화연구원, 2002년 2월), 412-441.
- 한동구, “잠언의 지혜 신학에 반영된 ‘공정한 사회의 이념’,” 『구약논단』 제 17권 3호(통원 43집 2011년 9월 30일), 12-33.
- 한동구,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사』(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1).
- Hausmann, J., *Studien im Menschenbild der älteren Weisheit* (FAT 7), (Tübingen: J.C.B. Mohr/Paul Siebeck, 1995).
- Meinhold, A., *Die Salomos* (Züricher Bibelkommentare 16), (Zürich: Theologische Verlag, 1991).
- Plöger, O., *Sprüche Salomos Proverbia* (BKAT 17), (Neukirchen-Vlyun: Neukirchener Verlag, 1981-1984).
- Scoralick, R., *Einzelnspruch und Sammlung. Komposition im Buch der Sprichwörter Kapitel 10-15* (BZAW 232),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5).
- Delkurt, H., “Grundprobleme alttestamentlicher Weisheit,” *VuF* 36 (1991), 38ff.
- Whybray, R. N., *The Intellectual Tradition in the Old Testament* (BZAW 135),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1).
- Preuß, H. D.,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Urban-Taschenbücher 383), (Stuttgart/Berlin/Köln/Mainz: Verlag W. Kohlhammer, 1987).

검색어

사회적 성찰

사회정의

성스러움

인과론

종교적 성찰

하나님 이해

Proverb's Understanding of God and Sacredness

Dong-Gu Han, T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yungTaek University

The present article studies how the early texts of Proverbs(10:1-22:16) worked out its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As a result, it argues that Proverbs understands the world-view and social demands of the Davidic-Solomonic era with a view to yield consequential theological discourses. Besides, the present article will examine the texts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the sacredness of God is revealed in the social order and justice.

The study begin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world-view of the early texts of Proverbs. Then it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 and the understanding of God, the notable characteristics of Proverbs, and also compares the traditional values with the novel ones as represented in the book. Consequently the study will show how the early texts of the book considered the social and religious ideas as well as the reverence

of God in the book. By doing so we will find out the sacredness which is imbedded in the social ethics, particularly characterized in the texts.

(The early part of) Proverbs employed the social demand requested in the time of David and Solomon that ‘the diversity of nations and social classes should be conformed to the norm’,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justice to set up a social order. In the book the principle that ‘the work of his hands rewards him’ is found; wealth is a reward of labor. Surely the book claims justice of fairness, principle of retribution, and causal relations to form the order of the empire.

Furthermore, Proverbs declares the universal values such as wisdom, justice and order, which were novel and made possible to break down the barriers of ethnic and regional identity.

Proverbs communicated with the social demands and spirit of Davidic and Solomonic era, and as a result, accommodated particular theological discourses in it. In a way it can be said that the sapient theologians of Proverbs made the real communication with the society possible. They made use of the certain measures of ‘diligence–indolence, wise–folly, and justice–injustice’ to innovate particular social value and code; they also contemplated to prevent unjust accumulation of wealth through the social regulation. They saw that divine values and codes were reflected in daily life. In other words in the social and ethical deeds divine will is to be found. Daily life is to be just and sacred.

The theologians of Proverbs argue that YHWH judges and observes human beings as omniscient and omnipotent Creator. Thus God manages to correspond appropriately to all the deeds of human beings, regardless of their plans.

The theologians of Proverbs found God’s sacred will in daily life as well as the social and ethical regulations, thus requested the Israelites to fear YHWH.

Keywords

social ideas

social justice

Sacredness

causal relation

religious reflection

Understanding of God

- 투고일: 2011년 12월 27일
- 심사일: 2012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2년 2월 2일